



대행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am

번뇌망상 · 삼독심 부처만드는 '불씨'

이렇게 한자리를 할 때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 조상의 목은 빛도 갇을 줄 모르고, 또 자기가 파거로부터 현재로 접어지고 나온 인과와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기초적인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노라'고 말씀드리고 돌 아닌 도리를 알게끔 하려고... 잘났든 못났든 이 기초적인 도리를 알아야 세세생생에 뜨겁지 않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좀더 분발해서 진실되게 믿음을 가진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초적인 도리를 모르고 그냥

각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본을 핵이라고 하고, 에너지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몸뚱이가 에너지를 담아 놓고 자유스럽게 꺼내다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르다면 모습이 다를 뿐이지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저 불레들이 자식 기르는 걸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마음은 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미가 제 새끼들을 제 등에 오골오골 업고 다니는 걸 보아도 일체 만물만생이 비록 모습은 다를지언정 부모 자식의 마음은 한가지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 자신도 부모의 속을 무척이나 썩혀 드렸습니다. 평생에 몰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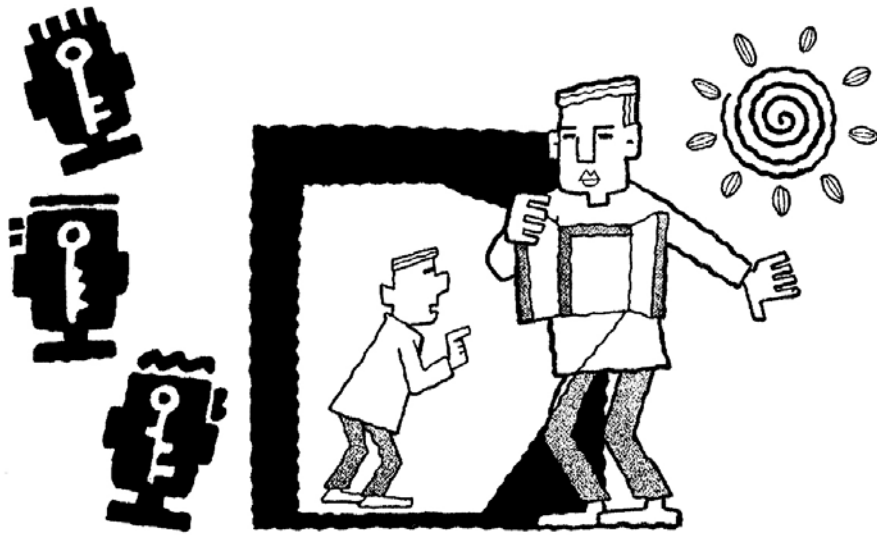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마음도리 알아야 자식에게 햇빛 줄 수 있고 부모 빛도 갇을 수 있어요”

몸이 떨어지게 된다면 세세생생에 업보에 갇혀서 자기 몸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레가지고서야 어떻게 조상의 목은 빛을 갇을 수 있었으며 자기가 뿌려놓은 자식들에게 햇빛이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못 건지니 자식들은 또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요. 이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윤회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들어가라, 아상과 아만과 아집 그 모두를 놓고 들어가라, 그래야 녹아진다고 거듭거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아주 겸손하게 모든 것을 놓을 수만 있다면 번뇌를 끊어라가 아니라 그냥 녹아진다고 이겁니다.

한가지 말씀드리지요.

이 세상살이 속에서 겪는 번뇌망상, 세상의 삼독심이 아마도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 수 있다는 불씨이자 거름이자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에 번뇌망상이 없고 삼독심이 없고 지옥고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처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리를 파악하려는 생각인들 해보겠습니까?

저는 이날까지 누구를 가르친다는 생

그릇 따뜻하게 대접해 드리지도 못했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사람들이 물어들어 제게 소식을 전하는데 안 찾을 수도 없고 해서 갔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무도한 사람이 또 있었느냐, 중이면 다냐'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나 때문에 몸져 누우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매정할 수 있는지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어머니의 몸이야 말하자면 고깃덩어리일 뿐이니 사대로 흠어질 뿐이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니 돌을 합치고 만(萬)을 합쳐도 마음엔 제가 없어 두드러지지 않으니 어머니 마음이 내 마음이라 울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도 분별입니다만 이 몸뚱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과 마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기알부할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똑똑치 않든, 병신이면 아나니든 이 세상에 나오기만 하면 그로써 고(苦)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건

“아상 무조건 놓고 들어가야 번뇌 녹아 자기 행복받으면 전체의 행복받는 셈”

마음의 도리를 아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상대가 어떻게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 또한 나 하나, 아니 이 잘난 나 하나부터 알면 이나 하나 속에 온갖 진리가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내 속의 진리를 알고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식에게 햇빛을 줄 수 있고 부모의 목은 빛을 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고 하는 것엔 어떤 기초적인 문제가 없느냐 하면 누차 얘기했듯이 영원한 생명의 불과 과거의 인으로 해서 불어 들어가는 혼백과 정자·난자가 합쳐져서 몸을 받아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 속의 의식이라는 것도 이루 해아리기 어려울 만큼 아주 다양하게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리려면 내 마음이 항상 한마음으로 평등하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를 운영할 때에 사장이 좀 손해다 싶어도 넉넉하게 베풀어 주면 능률이 더 오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서 잠재

해 있던 것들이 연방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데 뒤 조금 성이 난다고 해서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낸다면 이 건 금세 화창지옥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인이 과로 돌아올 때는 내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바깥 경계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으로도 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다 내 탓이지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안 경계 바깥 경계가 다 같이 돌아가니까 '나'라고 세우게 없이 다 공존하고 있는게 아니라, 그래서

주인공이라 그랬다 이겁니다. 이 말은 철두철미하게 잘 알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다 너다 하지만 일체만물이 다 전화를 가설해 놓은 것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항상 통신이 되는데, 그렇게 통신이 되면서 망하게도 하고 좋하게도 하는데 너다 나다 함께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내 마음에서 불을 켜면 내 자식, 내 부모에게도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서 켜면 저쪽도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나 이 무선통신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을 진실로 믿고 일체 살림살이가 주인공을 통해서 들고 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위로는 부모의 목은 빛을 갇을 수 있고 아래로는 자식들에게 햇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무선통신이니까요.

이것을 알면 과거의 습 덩어리도 다 말기고 놓을 수 있겠죠. 잡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들 잘 안된다고 그러느냐? 거기에 내가 불기 때문이지요. 본래 나리고 세우게 없는데 지꾸 나라는 걸 세우니까 이게 통신이 되질 않고 얽히고 설켜진 업보만 여차없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잘되는 건 잘되는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놓고 잘 안되는 건 안되는대로 주인공, 거기서 밖에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놓아라, 그러다보면 나를 발견하니 좋고 업보가 무너지니 좋고 돌 아닌 도리를 알게 되니 좋다 이거지요.

버린것만큼 얻게 됩니다. 몽땅 버린다면 몽땅 얻을 수 있죠. 바로 부처님께서 몽땅 버렸기에 몽땅 얻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행복받았느니라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행복을 받으므로써 전체의 행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 몸 속엔 수 십억, 수 십조의 생명 의식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몸뚱이는 말 하지만 그런 의식들의 집인 셈인데 어떤 걸 나라고 해야 옳을까요? 제일 큰 의식의 덩어리를 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걸 나라고 해야 하나요?

일체가 또 공존하고 돌아가는데, 제가 없이 들라날라하며 돌아가는데 어떤 걸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주인공 저것도 주인공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57)

내가 만든 '나의 삶'이라는 한편의 영화

“즐거움 일, 괴로운 일, 잘 되는 것, 안되는 것, 기쁜 일 슬픈 일, 잘나고 못나고, 행복, 우환,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자기가 마음으로 지은 결과이다. 자기가 저저런 일이 채곡채곡 쌓여 있다가 때를 만나면 술술 풀려나와 내 앞길에 가로 놓이는 것이다.”

배우가 역을 맡았을 때 연출가가 써준 대본대로 대사로 외우고 연기도 해야 하듯이 우리도 좋든지 싫든지 간에 내가 접어지고 나온 인과응보의 대본에 따라 지금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본이 싫든 좋든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연출가이자 동시에 배우인 것이니 마음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업보, 팔자운명을 스스로 녹이고 부수고 설계할 수 있다. 모름지기 그렇게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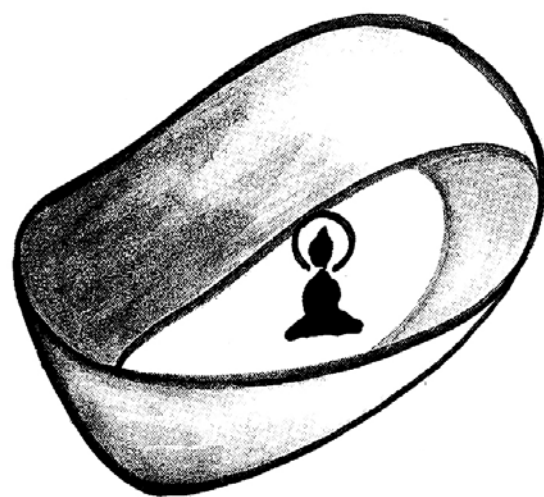
그것들로부터 달아나고 싶을 때가 많다. 누구라도 좋은 건 붙잡아 두고 싶겠지만 싫은 것, 슬픈 것, 우환 등으로 부터는 멀리 멀리 달아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때어낼래야 때어낼 수도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라도 따라온다. 숨을

긋아려온 없다. 도망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마치 그림자가 따라붙듯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한다. 그것은 꿈자리까지 따라 붙는다. 살아서도 못면하고 죽어서도 못면한다. 세세생생을 함께해야 한다.

인과 업보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거기엔 한 치의, 아니 터럭 한 올만큼의 예외나 오차가 없다. 뇌물도 통하지 않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다. 때가 되면 에누리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아무리 시주를 많이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대해도 울 것은 오게 되어 있다. 결코 썩지 않는 씨앗인 것이다.

인과의 씨앗이 썩지 않는다는 것은 철칙이다. 고로 업보의 과실은 언제나 자기 몫이다.

나를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짓고 받는 일에서 나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대상은 없다. 부모라도 아니고 남편 아내 자식이라도 아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오로지 내 탓일 뿐이다. 모든 것은 내가 쌓아올린 나의 업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몸으



로 지은 것이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내 앞에 극락이 펼쳐지든 지옥이 펼쳐지든 그것은 모두 내가 연출해낸 것이다. 지금의 나의 행복, 나의 우환은 모두 내가 진작에 행으로 지었던 것들이 오늘이라는 화면에 투영된 것일 뿐이다.

고로 오늘의 나의 삶은 어제의 연출가였던 내가 만들어 낸 영상물, 녹음물인 것이다. 내가 만든 '나의 삶'이라는 제목의 한편의 영화인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대본을 쓰고 내가 연출을 맡고 내가 배우가 되어 연기를 하고 내가 카메라를 돌려서 만든 한편의 영화를 지금 되돌려 보면서 기쁘다고 웃고 슬프다고 눈물 짓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인과 업보가 야속타해도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다. 내가 내 영화의 연출가라는 사실이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철칙은 독안으로 숨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이 소식은 내가 주체로 주인공임을 분명히하고 있는 것이니 한편으로 다행스럽고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왜냐? 내가 연출가이니 내 맘대로 대본을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망갈 수는 없지만 고쳐 쓸 수는 있다. 자재권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다.

고쳐 쓰면 된다. 지우면 된다. 다시 찍으면 된다. 대본이 싫거든 고쳐쓰자. 녹음된 내용이 마뜩지 않거든 지우고 다시 녹음하자. 영상이 맘에 들지 않거든 다시 찍자. 진작에 써 놓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고 과거에 녹음한 것이라도 재녹음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내게 닦아오는 모든 우환·질병까지도 모두 과거에 내가 지은 것 -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한 발짝 떼어 놓기 직전까지 지은 것의 결과물이니 고치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돈드는 일도 아니고 맘 흘려야 하는 일도 아니다. 다만 한생각을 바꿔서 마음 고쳐 먹으면 된다. 나의 해묵은 생각의 창고로 되돌아 가서 비뚤어진 생각들, 아만 아집에 몰들었던 생각들, 나만을 위한 생각들을 끄집어내어 녹여 버리면 된다. 대본을 고쳐쓰는 일은 한 생각을 바꾸는 바로 그 일이다.

협찬: 김상수·이성애·김이수